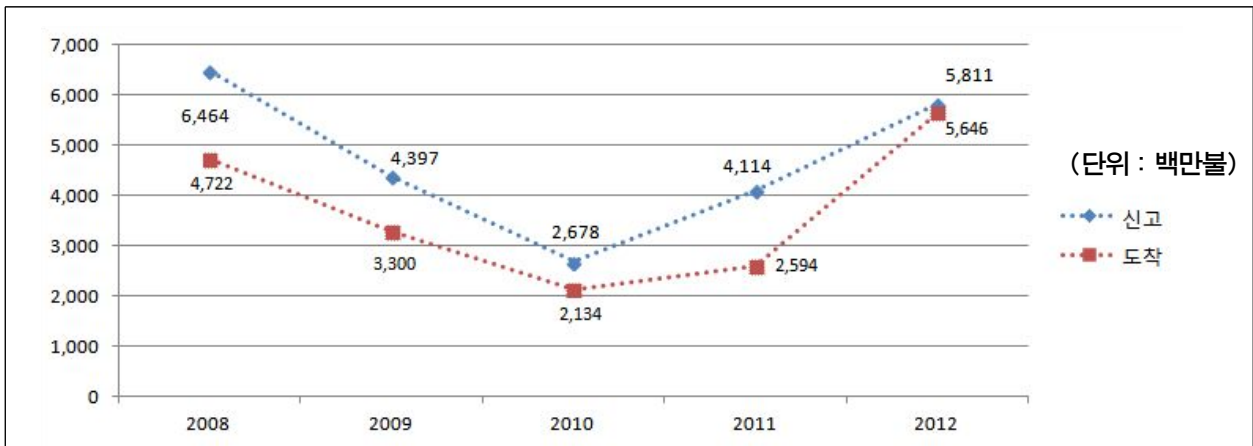


2012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

□ 총괄

- 기 간 : 2012년 1월 1일 ~ 12월 31일(1년간)
- 신고건수 : 1,211건, 63개 국가 987개사
- 신고총액 : **5,811백만불** (평균 4.8백만불, 최고 700백만불)
 - 2011년도 신고액 4,114백만불 대비 **41.3% 증가**
 - 전국 신고금액 16,258백만불(사상 최대) 중 35.7% 차지
- ※ 도착금액 : 전국 FDI 도착총액(10,376백만불)의 54.4%인 5,646백만불

< 연도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추이 >

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실적
 - ※ 종전 사상최대 실적은 2005년 7,163백만불
- 아시아(일본, 싱가포르 등) 투자금액 크게 증가(전년 대비 129.2%↑)
- 제조업 투자금액 크게 증가(전년 대비 168.8%↑)
- M&A형 투자 크게 증가(전년 대비 201.3%↑)

□ 분야별 특징

< 서울시 주요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>

(단위:%, 신고기준)

지역별	아시아 55.1 > 유럽 26.7 > 미주 17.8 > 기타 0.3
국가별	- 일본 38.9 > 싱가포르 8.8 > 네덜란드 8.7 > 미국 7.4 > 버진아일랜드 6.1
산업별	서비스업 82.1 > 제조업 17.8 > 기타 0.1
업종별	- 금융·보험 30.7 > 비즈니스서비스업 29.0 > 도소매(유통) 12.7 > 부동산임대 6.0
유형별	증액투자 62.9 > 신규투자 26.1 > 장기차관 11.0
목적별	그린필드형 52.1 > M&A형 47.9

지역별	아시아 투자금액 크게 증가(전년 대비 129.2%↑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미주는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유럽지역의 투자금액이 다소 감소(22.3%↓)
- 국가별로는 일본(38.9%), 싱가포르(8.8%), 네덜란드(8.7%), 미국(7.4%), 버진아일랜드(6.1%) 순으로 높게 나타남 ※ 중국 13위(2.2%)

<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>

<단위 : 백만불>

지역	2012년		2011년		증 감	
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
아시아	3,202	55.1%	1,397	34.0%	1,805	129.2%
유럽	1,553	26.7%	1,998	48.6%	-445	-22.3%
미주	1,037	17.8%	646	15.7%	390	60.4%
기타	19	0.3%	73	1.8%	-54	-74.0%
합계	5,811	100.0%	4,114	100.0%	1,697	41.3%

※ 신고액 상위국가

순위	국가명	신고액
1	일본	2,259
2	싱가포르	511
3	네덜란드	505
4	미국	430
5	버진아일랜드	356

※ 주요 국가별 동향

① 일본 : 전년 848백만불 대비 166.6% 증가한 2,259백만불

- '11년 대지진 이후 日 소비재 기업들의 부진, 엔고 등으로 부품소재 수요처가 많고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동시에 낮은 법인세·전력비 등 비용절감에 유리한 한국진출 급증 추세
- [산업별] 제조업(340.0% ↑) 및 서비스업(155.3% ↑) 모두 대폭 증가
- [목적별] M&A형(457.5% ↑) 및 그린필드형(64.3% ↑) 모두 대폭 증가

② 미국 : 전년 403백만불 대비 7.4% 증가한 430백만불

-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효과로 꾸준한 증가세 예상
- [산업별] 제조업(811.8% ↑) 대폭 증가, 서비스업(35.7% ↓) 감소
- [목적별] M&A형(298.7% ↑) 대폭 증가, 그린필드형(43.7% ↓) 감소

③ 유럽 : 전년 1,998백만불 대비 22.3% 감소한 1,553백만불

-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등에 따라 급격한 투자 하락 이후 2011년 회복세로 전환, 지난해 다시 감소세를 보여 직접투자 회복이 다소 주춤한 상태
- [산업별] 제조업(151.4% ↑) 대폭 증가, 서비스업(42.1% ↓) 감소
- [목적별] M&A형(134.6% ↑) 대폭 증가, 그린필드형(61.5% ↓) 감소

④ 중국 : 전년 39백만불 대비 223.1% 증가한 127백만불

- 위안화 강세 이용, 기술력·품질 갖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M&A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, 서울시 중국 FDI 신고액 상위 1, 2위 기업 모두 M&A에 해당

- [산업별] 제조업(560.5% ↑) 및 서비스업(176.3% ↑) 모두 대폭 증가
- [목적별] M&A형(3,882.9% ↑) 대폭 증가, 그린필드형(188.1% ↑) 감소

산업별 **제조업 투자금액 크게 증가(전년 대비 168.8%, 6억불 ↑)**

- 일본(A社 220백만불), 네덜란드(B社 209백만불), 스웨덴(C社 190백만불)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제조업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(168.8% ↑)하였으며, 제조업 내에서는 섬유·직물·의류(297백만불), 화공(276백만불), 전기·전자(238백만불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서비스업 투자도 증가(28.8% ↑)하였으며, 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·보험(1,785백만불), 비즈니스서비스업(1,686백만불), 도소매 유통(749백만불) 순임

<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)

업종	2012년		2011년		증 감	
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
서비스업	4,771	82.1%	3,706	63.9%	1,066	28.8%
제조업	1,035	17.8%	385	30.4%	649	168.8%
기타	5	0.1%	23	5.7%	-18	-21.7%
합계	5,811	100.0%	4,114	100.0%	1,697	41.3%

유형별 **증액(39.4% ↑), 신규(21.3% ↑), 장기차관(172.6%) 모두 증가**

- 국내 기 진출기업이 재투자하는 증액투자가 39.4% 증가하여 3,655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, 신규투자는 21.3% 증가한 1,518백만불 기록

- 증액투자 건당 평균 7,843천불, 신규투자 건당 평균 2,085천불로 증액투자가 신규투자의 3.8배

<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)

업 종	2012년		2011년		증 감	
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
증액투자	3,655	62.9%	2,629	63.9%	1,036	39.4%
신규투자	1,518	26.1%	1,251	30.4%	267	21.3%
장기차관	638	11.0%	234	5.7%	404	172.6%
합 계	5,811	100.0%	4,114	100.0%	1,697	41.3%

목적별	M&A형 투자 크게 증가(전년 대비 201.3%, 18.6억↑)
------------	--

- 美,EU와의 FTA 발효 및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상승과 일본·중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국내진출 등으로 M&A형 투자의 대폭 증가 추세
- 그린필드형 투자는 5.0% 소폭 감소한 3,030백만불 기록

< 투자목적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>

(단위 : 백만불)

투자목적		2012년		2011년		증 감	
	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	신고액	비율
M&A형	인수합병	867	47.9%	372	22.4%	1,858	201.3%
	기존 주식취득	1,914		551			
	소 계	2,781		923			
Greenfield형	사업장 설립/증설	2,979	52.1%	2,945	77.6%	-161	-5.0%
	공장 설립/증설	51		246			
	소 계	3,030		3,191			
합 계		5,811	100.0%	4,114	100.0%	1,697	41.3%